

# 황금알 낳는 케이블카?...전국 22곳 상당수 만성적자

## 광주·전남 케이블카 열풍

광주·전남에 '케이블카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이 지역에 산과 바다 등이 어우러진 관광명소가 많아 단기간에 케이블카 건설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급호텔과 리조트 등 관광지가 제대로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블카를 통해 지역의 자연환경을 매력적인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 지자체들이 앞다퉀 케이블카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국내 지자체들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고, 졸속 추진에 따른 환경 훼손 우려도 낳고 있다.

◇'황금알 케이블카' 열풍=한 해 최고 관광객 1500만명(2017년 기준)을 유치하고 있는 여수는 케이블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고속철도 등 여수로 오는 교통편이 크게 나아졌고, 젊은 층 사이에 시작된 '여수 밤바다' 열풍마저 불면서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 이 때문에 여수세계박람회장 인근에 설치된 해상케이블카는 개장 초기부터 인기를 끌었고, 주말이면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찾아든 차량으로 인근 도로는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 여수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관광지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서 시너지

여수 한해 200만명 이용 대박

전국 지자체들 앞다퉀 추진

무등산·지리산 환경단체 반대

관광 여건과 조화 이뤄야 효과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국내 최초-아시아 네 번째로 해상에 도입된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연간 탑승객 2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관광 활성화의 일등공신이 되고 있다.

◇전국 앞다퉀 케이블카 설치= '케이블카 열풍'은 비단 광주전남의 일만은 아니다. 강원도 지역은 최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를 꾸렸고, 통영·밀양에 이어 사천·거제·장원에서도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통영시는 한반도 6개 섬을 연결하는 국내 최장 23km 해상케이블카를 추진하는 등 현재 경남에만 3개의 케이블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천의 바다케이블카는 오는 3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2015년 12월 착공해 600억원(도비 40억원)을 투입했다. 거제에서는 총사업비 420억원을 투입한 학동케이블카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창원 진해에서도진해구민회관 체육관-하

늘마루-장복산 정상 부근까지 1.64km 구간을 자동순환식 곤돌라로 연결하는 진해빛썰매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환경단체 반대=문제는 모든 케이블카 사업이 성공한 것이 아니고 환경단체 등의 반대도 크다는 점이다.

앞서 남해군이 지난 1992년 세원 화창과 관광개발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했던 금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또 광주지역에서 추진됐던 무등산 케이블카와 지리산케이블카 설치 등도 지역 환경단체 등의 극심한 반대를 불러오고 있다.

케이블카의 관광 효과도 생각보다 적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5년 기준 전국 관광용 케이블카 22곳 중 흑자를 내는 곳은 통영과 서울 남산, 강원 설악산권 금강, 여수 등 4곳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지역 한 여행사 대표는 "중국관광객 등이 해상 케이블카를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케이블카가 만능이 아니고 지역 관광 여건과 잘 조화를 이뤄야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최근에는 너무 많은 케이블카가 건설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수 해상케이블카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전남 각지에서 케이블카 열풍이 불고 있다. 사진은 20일 케이블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목포대교 일대의 모습. /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

## 전남지역 케이블카 운영 현황

시군	위치	기수/형식	용도	총연장(km)	최고높이(m)	승차정원	연간 이용자
여수	돌산	50기/순환	관광용	1.5	98	17기당 8명	100만명
해남	두륜산	27기/순환	관광용	1.57	560	17기당 51명	6만명
목포	부주산	17기/왕복	화물용 (산악 자전거)	0.28	31	200kg	휴지중 (*18.3.11~19.3.10)
담양	추월산	17기/왕복	화물용 (보리암 화물)	0.87	600	300kg	화물용
장성	백암산	17기/왕복	화물용 (백암사 화물)	0.25	741	300kg	화물용
목포	유달산	55기	관광용	3.23		17기당 10명	5월 개통예정
진도	울돌목	30기	관광용	1.15		8?12인승	12월 개통예정
여수	돌산~경도		관광용				

## 여수 돌산~경도 잇는 2km 해상케이블카 건설 추진

경도 해양관광단지 마스터플랜 6·4성급 럭셔리 호텔 들어서고 인근 무인도 2곳에 빌라콘도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감도.

여수 돌산과 경도를 잇는 해상케이블카 건설이 추진된다. 또 여수 경도 관광단지에 호텔 2개와 함께 인근 무인도 2곳에 특화된 빌라콘도가 들어선다. 이는 미래에셋이 1조3800억원을 투자해 아시아 최고 리조트 건설을 추진하는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마스터플랜이다.

20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미래에셋컨소시엄은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면적을 기존 212만7000㎡에서 214만3000㎡로 1만6000㎡를 확대했다. 경도 인근 무인도인 송도와 노도를 개발지역에 편입해 특화된 빌리지 숙박시설을 신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마스터플랜에는 6성급 럭셔리 호텔과 4성급 워터파크 호텔이 포함됐다. 당초 거론됐던 영국의 대관람차인 '런던 아이' 같은 사업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돌산과 경도를 잇는 2km 길이의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돌산과 오동

도 인근 자산공원을 운영하는 케이블카와 연결할 것인지, 따로 돌산과 경도를 잇는 케이블카를 설치할 것인지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글램핑장 앞에 인공해변을 조성한다. 콘도, 대안회장, 실내·외 워터파크, 쇼핑몰 등도 들어선다.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비는 예초 1조5000억원으로 알려졌다. 1조3850억원 수준으로 확정됐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경도 개발계획 변경안을 전남도 협의를 거쳐 4월 중 승인되면 5월 중 실시계획 승인 절차

를 밟을 계획이다. 실시계획 승인 절차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사업시행자인 미래에셋은 내년 상반기 부지 조성을 시작해 오는 2024년 말 완공한 뒤 2025년부터 경도 해양관광단지를 개장할 계획이다.

한편, 여수 경도와 신월동을 연결하는 경도지구 진입도로(연륙교) 건설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진행 중이다. 연륙교는 연장 1.52km, 폭 13.8m, 아치교·사장교이며, 예정 사업비는 1154억원으로 국비 40%, 지방비 40%, 미래에셋 20% 부담 예정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잠은 치유·충전이자 예술적 영감의 원천



김은영의 '그림 생각'

### (260) 잠

한국은 대표적인 '잠 부족 국가'로 꼽힌다. OECD통계에서 한국인의 수면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고 심지어 청소년의 수면 시간도 최하위라고 한다. 잠을 이루거나 잠 못 이루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불면의 사연은 성공 스포츠, 취업, 인간관계, 사회적 불만, 학업, 사교육, 스마트폰 사용 등 저마다 다르겠지만 잠을 줄일 정도로 현대인의 삶이 분주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실바도로 달리 작 '잠'

인간의 삶에서 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예술에서도 잠은 작품의 주제로 빈번하게 다루어졌다. 특히 미술에서는 신화, 꿈, 일상 생활 등에서 잠을 표현한 작품들이 의외로 많다.

'잠에 취한 미술사'의 저자 백종욱 미술생태연구소 소장은 "잠은 휴식과 이완이며 치유와 충전의 행위다. 더불어 잠은 꿈을 통해 깊고 광대한 무의식에 접속하는 기회를 만들어주며, 문제를 해결하고 창조의 영감을 얻는 과정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잠의 역할은 예술의 역할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잠과 예술은 비슷하다"고 강조한다. 잠은 그야말로 만고 불변하는 보약이자 예술적 영감의 원천인 셈이다.

실바도로 달리(1904-1989)의 '잠'(1937년 작)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커

다란 두상이 공중에 떠있는 채로 잠들어 있어 이를 보는 사람들에게 무의식의 세계를 상상하게 만드는 작품이다.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늘어진 두상을 떠받치고 있는 버팀목들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아슬아슬하다. 잠들지 못한 불면의 시간을 고통스럽게 묘사한 듯 감겨지지 않은 눈꺼풀을 억지로 실로 꿰어 아예 버팀목으로 매어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잠이 부족한 현대인들이라면 달리의 그림 속 잠을 청하는 모습을 보고 일상 생활에서 잠의 힘에 대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것 같다. <미술사박사>

## 한국형 연금 발전소 분양 (태양)

**A 타입** 식용달팽이 사육장(건물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B 타입** 미래형 100KW 550만원(예상) 현금투자대비(년 40% 수익가능) **최단 2년6개월 자금회수가능**

##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에너지관리공단 80% 용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농협 2018. 5. 1. 대통령령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전·답 가능)

모듈·LG·한화큐셀(단결정) 인버터·ABB(이태리)·카고(독일)

###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암 신북면 잔여분 5기
- 영광 흥농 잔여분 3기

2019년 8~10월 준공예정



- 한전과 20년 장기 계약 안정적 투자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부지 매입합니다(전·답가능)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지!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87-8

전국대표 ☎ 1588-1543 · 010-3645-1479